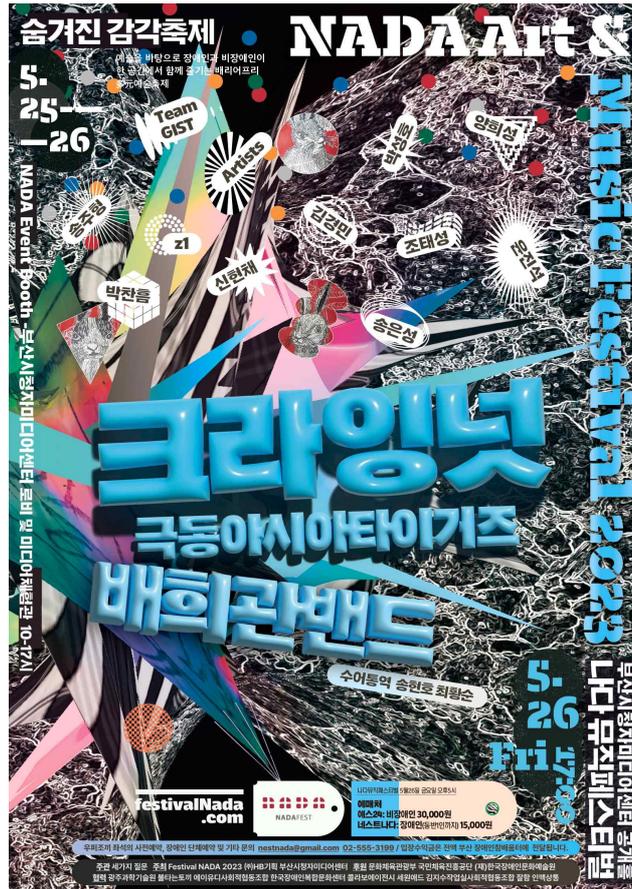


# 지스트, 배리어프리 음악축제로서 청각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음악·공연 선봬

- 융합기술학제학부 팀지스트, 청각장애인 음악 감상 지원하는 전시·체험 제공
- 부산 바다페스티벌서 AI 수어 댄서 <소리토끼>로 크라이닝넷과 콜라보 공연



[사진1] '나다 뮤직페스티벌 2023' 포스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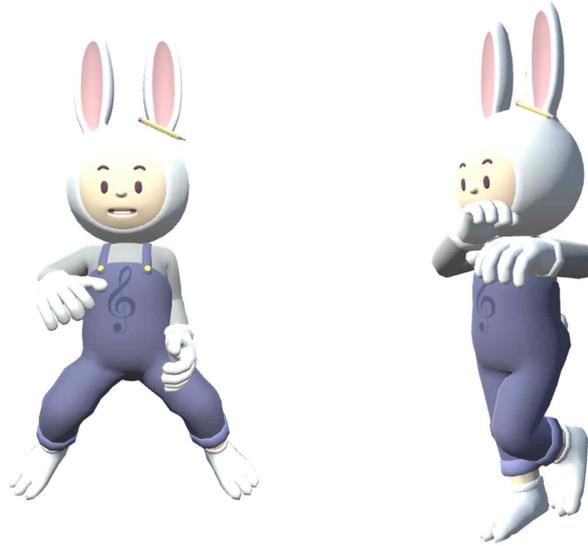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직무대행 박래길) 융합기술학제학부 소속 '팀 지스트'가 '페스티벌 바다 2023'에서 청각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음악과 공연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.

2012년 시작된 국내 최대 배리어프리\* 음악축제인 페스티벌 바다는 장애를 가진 관객을 위한 전시·체험을 지원하며 AI, 미디어아트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청각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라이브 공연을 진행한다. 올해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5일과 26일 양일간 개최된다.

\* **배리어프리(Barrier free)**: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하는 데 있는 물리적 장애물, 심리학적 벽 등을 제거하자는 운동 및 정책을 의미한다.

팀 지스트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'음악·댄스 실감가시화 기술'을 개발하는 연구팀으로, 융합기술학제학부 홍진혁 교수가 김경중, 이지현, 송은성 교수와 함께 지도를 맡고 있다.

크라잉넛, 배희관 밴드의 라이브 공연에는 팀 지스트가 개발한 **AI 수어 댄서 '소리토끼'**가 출연해 흥을 더할 예정이다. 청각장애인이 노래를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노래 가사를 토대로 수어 댄스를 생성하는 AI 기술이 적용됐다.



[사진2] AI 수어 댄서 '소리토끼'가 노래 가사를 수어 댄스로 변환하고 있다.

아울러 5개 부스를 마련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감가시화 기술을 흥미로운 콘텐츠로 선보일 예정이다. ▲AI 수어 댄서 소리토끼, ▲소리를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만들어 보는 도구인 **비즈헵 신디사이저**, ▲다양한 소리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악 교육 및 악기 연주 프로그램인 **Viz-stage 음악 교육 도구**, ▲시각과 촉각으로 즐기는 댄스 게임인 **댄스 with 저스트 댄스**, ▲치아를 통해 음악을 듣는 **구강형 골전도 마우스피스**가 전시된다.



[사진3] 소리를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만드는 '비즈헵 신디사이저'를 관객이 체험하고 있다.

홍진혁 교수는 "이번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 청각장애인 관객의 생생한 피드백을 들을 수

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”며, “팀지스트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연구실 밖에서 다양한 실증을 지속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**[사진4]** 지스트 융합기술학제학부 '팀 지스트'가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  
(맨 앞줄 왼쪽부터) 융합기술학제학부 홍진혁, 김경중, 송은성, 이지현 교수

이번 연구성과는 지스트가 주관기관을 담당하고 (주)씨케이머티리얼즈랩, KAIST, 세종대학교, 핸드스피크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수행됐으며,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<청각장애인의 음악 향유를 위한 음악 및 댄스 실감가시화 기술 개발> 과제로 진행됐다.